

문화를 지킨 정세권

도서명 : 건축왕 정세권

최지효

학교에서 사회를 배울 때 선생님이 독립운동가에 대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 위대한 신분'이라고 말할 때마다 '나라를 지킨 건 위대하지만 굳이 목숨을 버려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했다면 적어도 가정을 지키진 않았을까? 자신의 가정보다 더 중요한 나라를 지키는 의미를 나는 아직도 잘 이해하진 못하는 것 같다.

엄마와 북촌 한옥마을에 간 적이 있다. 한복을 입고 북촌을 걷는 미국인들 사이로 동생과 걸으며 한옥집을 구경했었다. 우리나라의 정서를 알기 위해 북촌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옥에 대한 뿌듯함을 느꼈는데, '건축왕 정세권'을 통해 이 한옥을 정세권에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축왕 정세권'은 일제 강점기에 집을 지은 정세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아버지 집에 간미루는 할아버지가 전해주시는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 시절 할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웠는데, 집주인의 사정으로 빌려 살던 집에서 내쫓겼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우연히 큰 상궁을 도와 큰 상궁집에서 살게 되었다. 하지만 엄격한 큰 상궁집에서 정세권 동생들이 살기엔 눈치가 많이 보이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다 신문에서 발견한 정세권을 무작정 찾아간 할아버지는 정세권의 도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 정세권에 대해 점차 알아가게 된다. 그러다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 집값을 연부와 월부로 납부할 수 있게 해준 정세권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세권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 일제가 한옥을 짓지 말고 일본식 집을 지으라고 협박한 것이다. 이를 거절한 정세권은 재산과 땅 등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긴다. 나는 일본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무리 식민지였다 해도 굴러오는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건데 문화는 존중해 줄 수 없었을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알게 되니 더 마음이 아팠다.

북촌 한옥마을은 매년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한다. 흔히 독립운동은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세권 선생님의 독립운동은 목숨보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로 나라의 문화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나의 장래희망은 선생님인데, 나도 나의 직업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얼을 지켜내는 인재를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